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0호 [루게 제2760호]

주제 112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음력 6월 5일

철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인민이 드리는 전승절에 즈음하여 철세위인들께 숭고한 경의



영원한 태양이신 철세의 위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이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반제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정의와 평화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을 조국보위성전으로 불리일으키시고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비범한 평균술로 적들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압도하시어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인류전쟁사에 길이 빛날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었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던 조국해방전쟁에서 청소환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공화국인민이 영웅적인민으로 력사무대에 당당히 등장할 수 있었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군사적예지와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수십성상 주제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리고 사회주의혁명과 건설,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시였으며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로 강대하고 존엄높은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시었다.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시어 공화국인민이 영원히 승리해나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

과 재부를 마련하시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장을 펼쳐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반세기 넘는 장구한 기간 주제의 가치,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어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주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전설적위인이시다.

탁월한 군사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0대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범을 체득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이라는 철리를 밝혀주시어 공화국인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인민앞에 전대미문의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5천년민족사의 특대사변들을 안아오시었다.

공화국인민이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치렬한 반제대결전에서 련련승하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세계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올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사상과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리해안의 예지로 공화국을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갈 수 있는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만고불후의 업적을 다시금 새겨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세대와 세기들을 이어오는 반미대결결전을 총결산하고 이 땅위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신념을 안고 전승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장형범

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희세의 령장

주제101(2012)년 7월 17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은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백옥같은 충정의 분출이며 공화국의 강성번영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의 승리를 기약해준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이날을 맞이한 이 땅의 인민들은 공화국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되게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과 탁월한 령도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그 어떤 대적도 덤벼들지 못하게

전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열병대오를 바라보며 온 나라 인민은 인민군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시는 철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국가의 존엄과 안전, 인민의 안위를 굳건히 지키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서는 강위력한 혁명군대가 있어야 한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10여년간 인민군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었다.

이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시는 선군건설-김정일주의화를 굳건히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사상,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을 비롯한 독창적인 군건설사상과 리론들은 인민군대를 최정예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불멸의 지침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적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



들을 돌아보시며 5대교양을 원리적으로 심도있게 하도록 하시였고 전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불길을 지퍼주시어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든든히 무장한 혁명가들로 키워주시었다.

동서고금의 모든 병법들과 그 활용방식까지 완히 꿰뚫어보시며 어떤 형태의 전쟁과 작전, 전투에서도 다 승리할 수 있는 령할무쌍한 주체의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군사적예지는 인민군대가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게 한 백승의 보검이었다.

전군을 강철의 전투대로 꾸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군술은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비롯한 전국적인 대회들과 오종훈7련대청호쟁취운동과 군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 운동에도 어려웠으며 끊임없이 찾고찾으신 포연서린 전투훈련장들에도 새겨져있다.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위험천만한 최대열점지역에 까지 서슴없이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은 전군을 령도자와 생사를 함께 하는 진정한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굳건히 다져놓았다.

지난 2월의 열병식장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의 합성을 터치는 열병식참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을 잘 엿볼 수 있다.

진정 천출명장의 탁월한 군건설령도가 있어 공화국군대는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든든히 준비된 최강의 군대로 자라날수 있었다.

무진막강한 공화국의 국력

지난 2월 8일 김일성광장을 누비며 도도히 나아간 주체병기들을 보며 세계는 공화국국방공업의 발전상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시위한 이 철의 대오는 나라의 국방공업발전예에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세계적인 막강한 군사력,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수호할 절대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국방과학자들에게 국방과학의 길은 자주성의 길, 혁명의 길이라는 신념과 의지도 안겨주시고 초강력주체무기들의 완성을 위해 험로역경을 한치한치 앞장에서 헤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건국이래 가져보지 못하였던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게 되었다.

힘과 힘이 치렬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지론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데서 민족과 그 끝이 있을수 없으며 그 누구와 맞서든 우리 군사적강세는 보다 확실한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었다.

지난 10여년을 되새겨보며 공화국인민들은 그이의 령도따라 당겨올 위훈과 미려를 내다보고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걸출한 사상과 령도, 열화같은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존엄높은 강국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정의와 평화의 위대한 수호자, 만고절세의 영웅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11돐을 맞으며 이 나라 인민은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고있다.

김명일

